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 광야의 소리

## Voice in the Wilderness

9월호  
2011

### 뉴멕시코 교회연합 특별 부흥집회



뉴멕시코 교역자 연합회에서 오는 9월 16일(금)부터 18일(일)까지 이성일 선교학 박사님을 모시고 특별 부흥 집회를 엽니다. 이 특별한 기회에 지역 교민 여러분들을 모두 초청합니다.

■ 2011년 9월 16일(금) 저녁 7시

주제: 주님의 입재 속에 사십니까?

장소: 뉴멕시코 성결교회 (238-3551)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06

■ 2011년 9월 17일(토) 저녁 7시

주제: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장소: 주님의 교회 (903-2297)  
12121 Copper Ave., NE  
Albuquerque, NM 87123  
(Copper and Juan Tabo)

■ 2011년 9월 18일(일) 저녁 7시

주제: 주님과 동역하십니까?

장소: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238-3551)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87121

주제: 우리의 진실로 복을 알고 있는가?

주최: 뉴멕시코 주 안에 있는 한인 교회  
교역자 연합회

### 뉴멕시코 한인회 소식



뉴멕시코주 한인회 김치축제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M

Saturday,  
September 24<sup>th</sup> 2011  
10:30am – 3pm

4<sup>th</sup> Annual

## Korean KimChi Festival



FREE ADMISSION

Includes:

- Various KimChi
- Rice Cakes
- Mandu (Dumpling)
- Entertainment
- Folk Dances
- TaeKwonDo
- And more!!!

For Sale, Lunch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22  
(NW corner of Menaul & Eubank)  
Tel 505-271-1777  
www.KAAANM.com

Sponsored by:

Korean Consulate General L.A.  
Korean Students Assoc. at UNM  
Korean Pastors Association  
Korean Catholic Church  
A-RJ-Rang Oriental Market  
Kim's Oriental Market  
A-1 Oriental Market  
Pacific Rim Restaurant  
Sizzler Restaurant  
Sakura Restaurant  
All Star Repair (Yongshin Kim 김영진)  
Kelly Account (L.C. 조규자)

( : 505-610-5258)

### 한인회 김치 축제

한인회 연중행사인 김치 축제가 9월 24일(토)에 열립니다. 뉴멕시코 주 교역자 협의회 협력으로 각 교회에서 직접 만든 다양한 김치들과 런치박스과 수정과, 떡, 불고기, 만두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미리 주문하셔도 되고 행사 당일에 오셔서 직접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이나 소식을 접하지 못한 한인 분들에게 많은 광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일에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국문화 알리기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의 자원봉사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런치박스 10  
불 : 밥, 불고기, 만두, 경단, 물, 다양한 김치, 수정  
과)(담당: 낸시 낸스, 505-610-5258)

## 단요가 무료강연회

단요가 무료강연회(브라이언 김)가 9월 17일(토)  
1시에서 3시까지 한인회에서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의 참가 바랍니다.

## 역사 프로젝트로

### 뉴멕시코 일본인회에 보조금 지급

(League Gets Grant For History Project)

일본계 아메리칸 시민연맹의 뉴멕시코 지부는 국  
립공원청(National Park Service)에서 중여하는  
2011년 일본인 억류관련 지역조사 보조금을 받게 되  
었다. 이는 이차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시민을 뉴멕시  
코에 억류한 바 있었는데 이 지역에 관련된 역사 자  
료, 그의 해석, 관련된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로 주어  
진 것이다. 뉴멕시코 지부가 받게 된 보조금 액수는  
\$54,077.00 이다.

일본인회(연맹지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  
자금은 내년도에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연구하는 비용  
으로 쓰일 것이라고 했다. 이동 전시물, 영구적이 될  
웹사이트 디자인, 사적지에 세울 안내판과 일반에게  
배포할수 있는 유인물 제작등이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일본인이 억류되었던 사적지는 산타페(Santa Fe), 로  
드스버그(Lordsburg), 포트스텐톤(Fort Stanton),  
올드라톤 랜치(Old Raton Ranch)(라톤 형무소 자  
리)가 된다.

(알버커키 저널 신문 2011년 9월5일자 기사 번역문,  
이경화 번역/제공)

한국학교에서 9월 10일에 시작되는 가을학기 등  
록을 받습니다. 수업 시작 이후에도 계속 등록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와 권유를 부탁드립니다.

### ■ 가을학기개강:

9월10일(토 Pre-K-12학년 9:15 am - 12:15 pm

9월14일(수 성인반 6 pm - 8 pm

### ■ 과목:

한국어 (교재: E-높이로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특별활동(한국문화 무용 동요 미술

■ 수업료: \$120 + 교재비\$30

### ■ 장소 및 연락처:

뉴멕시코한국학교(한인회관 [www.kaanm.com](http://www.kaanm.com)

9607 Menaul Blvd. NE ABQ, NM 87112

(505) 271-1777

교장 이선아

ninosophia@hotmail.com (505) 515-4211

### ■ Fall Semester:

Begins on Sat. 9/10/11 (Pre-K to 12th Grade)

9:15 am - 12:15 pm

Wed. Sep. 14th (Youth/Adults) 6 pm - 8 pm

■ Tuition: \$120 per semester + Text \$30

### ■ Location & POC:

NM Korean Language School (=Korean  
Community Center), 9607 Menaul Blvd. NE  
(NW corner of Menaul & Eubank)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www.kaanm.com](http://www.kaanm.com)

Principal: Sun Ah Lee, MFA,

ninosophia@hotmail.com cell (505) 515-4211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Closed on Sundays**

## 뉴멕시코 한국학교 학생모집

### New Mexico Korean Language School Registration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com](mailto:kuchachoy@q.com)).

**광야의 소리는**

매달 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Contact: 권구자 Kucha Choy 505-553-1009,  
[voiceofnm@gmail.com](mailto:voiceofnm@gmail.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4)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사명

조영진 감리사  
(이소영 자매 정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민자로서의 코리안-아메리칸의 사명이 무엇인가?

인생에도 Half-time이 필요하다. 전반전은 대부분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반면, 후반전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Half-time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땅을 찾아온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미국의 역사 속에서 훗날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한인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실까?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일흔 다섯 살의 나이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그가 고향을 떠날 때 세가지 약속을 주셨다: 네 자손이 바닷가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와 네 자손에게 땅을 줄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임을 약속을 통해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다. 성경에서 보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하지 않으셨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다.

첫 번째 약속인 네 자손이 바닷가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는 말의 의미는 후손들이 잘될 것이라는 것이다. 땅을 준다는 것은 안정된 삶의 터전을 준다는 말이다. 우리 모두가 이 꿈을 쫓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으나, 우리 한인동포들의 가슴 속에서 많은 경우 보이지 않는 꿈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미국 사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뜻이 아닐까? 먼 훗날 코리안 아메리칸들에 의해서 미국의 역사와 미국의 교회들이 새로워졌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를 살아야 하지 않을까? 물론 내 자식 복 받고, 안정된 삶을 찾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서만 머문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뜻이 맞을걸까?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자로 찾아왔던 것을 시작으로 오늘날 100년의 이민 역사를 넘어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왔는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것일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진정 이땅에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한인동포들이 미국의 역사 속에서 복의 근원으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첫째로, 무엇보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 그냥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야 한다. 책임을 느끼고 살아가는 인생 물론 귀중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인생은 내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다. 한인동포의 정체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고백이다. 가장 위대한 예술가인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명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 자신의 모습이나 삶에 대해 자신감이 생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찾아오게 된 것도 단순한 나의 선택이나 결정이 아니라, 그 배후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지금까지 백만명이 훨씬 넘는 한국동포들이 비자를 받고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이러한 민족의 대이동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전혀 없었을까?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가, 왜 이땅을 찾아왔는가를 새로운 차원에서 보는 눈이 열린다.

두 번째로,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났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려면 떠나는 삶이 필요하다. 우선, 지나친 한국에 대한 집착에서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사회에 제대로 참여하려면 미국 사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을 배워야 한다. 영어도 배우고, 미국에 관한 뉴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만 머물고 있는 신앙에서 떠나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에서만 머물면 안된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열심히

### Yummi House 雅敍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 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505) 271-8700

####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7.95

삼선짬뽕 \$7.95

해물탕면 \$7.95

다섯가지 냉채 \$29.95

깐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7.95

탕수우육 \$10.95

양장피 잡채 \$15.95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서 성전 문을 나설 때 다음 주에 보자고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정, 직장, 사업장에도 같이 가지지 않겠는가?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신앙의 고백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가정, 직장, 어느 영역에서도 고백되는 그런 전천후 신앙으로 자라가야 이 세계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아닐까? 몸도 마음도 재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권아래 내려놓는 신앙이 필요하다. 일터도 주님께서 주신 터전으로 고백하며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하나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부정직한 삶을 버려야 한다.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손해 볼 각오를 해야 한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에 타격이 와도 괜찮다는 그런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돈 몇백불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팔아선 안 된다.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밋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비즈니스한다는 이미지를 남길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시작될 것이다. 박노해 시인의 '참사람이 사는 법'이라는 시는 노래한다. 손해 보더라도 착하게 친절하게 살자, 상처받더라도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살자, 뒤쳐지더라도 서로 돕고 함께 나누며 살자, 우리 삶은 사람을 상대하기보다 하늘을 상대하는 거다, 우리 일은 세상의 빛을 보기보다 내 안의 빛을 찾는 거다.

셋째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주어진 땅이라고는 자기 아내 사를 묻었던 막벨라 굴밖에 없었고, 후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생전에는 독자 이삭밖에 없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도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시간으로 길게 봐야하는 과제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다 뛰는 마라톤이 아니라 릴레이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시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를 충실하게 다 하고 다음세대에 바톤을 넘겨주면 되는 것이다. 우리 1세대는 어쩌면 씨만 뿌리고 갈 수 있다, 어쩌면 짝이 트는 것만 보다 갈 지도 모른다. 열매가 무성한 나무, 아름다운 미래는 2세대에, 3세대에, 4세대에 가서야 맺을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시대에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우리 시대의 숙제는 신앙으로 무장된 지도자를 길러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다.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그릇을 준비하셨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땅을 떠나는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면서부터였다. 40년의 광야생활을 통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룩하셨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의 전환기가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

사무엘이 준비될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아기예수가 잉태된 것으로부터 복음서는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30세가 넘으셔서 준비되셨을 때 인류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는 믿음으로 무장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서 지도자로 키우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대대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이 땅에 찾아와 이만큼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은 우리의 미래를 드리는 것이다. 믿음으로 무장된 귀한 지도자를 길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많은 것들을 사주고 해주었다. 그러나 가장 귀중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진리를 물려주는 일에는 얼마나 관심을 가졌으며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정말 중요하다. 이런 지도자를 길러낸다고 하면, 비록 우리 시대에는 심고만 갈지 모를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자라는 새로운 시대에 이 땅의 역사 미국 땅의 역사를 새롭게 세울 수 있다. 왜 우리가 이땅에 왔는가? 남은 여생 골프, 낚시 즐기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땅에 왔을까? 이 땅에 살려고 왔으면 이 나라에 참여해야 한다. 좀 몰라도 가서 투표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역사는 팔짱 낀 방관자에 의해 변화되지 않고 참여자에 의해 변화된다. 하나님께서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깨닫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 사회에서, 알버커키 커뮤니티에서, 미국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있기를 바란다.



**ICHIBAN**  
Japanese Restaurant

一番 Japanese Food & Korean Food

Phone (505)899-0095  
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 용욱이의 편지

● 서울 글짓기 대회에서 1등한 어린이가 예수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 초등학교 3학년 용욱이에요, 우리 가족은 별집에 살아요,

별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번호가 써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를 기다려야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희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가족은 외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여동생 용숙이랑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네 식구가 함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2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두 번 정도 취로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세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가난해요, 그래서 동회에서 구호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싸 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드셔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에 취해서 엉엉 우시면서 우리를 보면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같이 죽어버리자" 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우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를 '술집 작부'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부활절 날 '엄마를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욱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울음을 터트렸어요,

그 날 교회에서 삶은 계란 두 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기에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니까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면서 "흥, 구원만 받아서 사느냐 집주인이 전세

금 50만원에 월세 3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고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은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아무도 몰래 교회당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 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 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 날 제가 1등 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 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에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오셨어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세요"라고 위로해 주셨을 때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제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괜찮습

## HUONG THAO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 Beer & Wine

Tues - Sat 11:00am - 9:30pm • Sun 11:00am - 8:30pm

1016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 (505) 292-8222



Choices: pork, shrimp, chicken, beef, \$11.25 or any combo for \$11.95  
Extra large add \$3.95 Extra noodles \$2.25 Extra Meat 2.95

베트남 스프링롤

#18





니다."하신 후에 할아버지가 지으신 동화책 다섯 권을 저에게 주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주신 동화책을 읽는 중에 책갈피에서 흰 봉투가 떨어지기에 열어보았더니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엄마에게 보여 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 속으로 '수표는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울먹이면서 "애, 용욱아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원도 주셨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 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얹게 하고 가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우셨던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 가지고 오셨어요, 나는 엄마가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욱아,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은 꼭 갚아 드린다고 말아야"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 드림- (신경일 목사님께서 제공)

-에세이-

## 경험

이 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모든 상태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각자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된다. 경험은 몸소 겪고 치러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때때로 경험에 의해 얻은 지식,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 장기간에 걸친 견문 등을 뜻하는 말로도 쓰여서 경험이 풍부하다고도 하고, 경험을 살린다고도 한다. 사물현상 즉 감각이나 지각작용에 의해서만 깨닫게 되는 객관적 대상을 놓고 볼 때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지식, 진리는지각적 경험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진리도 물질에서 진화되어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된 독특한 경험이 인류의 유전자 속에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삶은 경험의 연속이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그만큼 경험이 풍부해진다. 경험은 기억을 발생시키며, 수많은 기억들 중에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나에게는 참적을 당한 경험이 있다. 가슴 속에 묻어두는 것 말고는 달리 어찌해볼 수가 없었던 그 경험은 살아있는 동안 나와 함께하다가 무덤까지 갈 것이다. 이런저런 일을 수없이 겪다 보면 흔히 주변상황에서 분리되거나 초연해지게 되는데, 초연해지는 것이 무관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왔고, 그래서 상황의 흐름에 몸을 내맡기는 법을 배워 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지혜로워졌음을 의미한다. 나이 든 사람은 또 과거의

 <p><b>Japanese Kitchen Steak House</b></p> 	<p><b>Japanese Kitchen</b> <b>제페니즈 키친</b></p> <p><b>일본인이 경영하는 일식 정통집</b> <b>일본정식(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b> <b>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콩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b> <b>(대만)야끼전문, 고기 종류와 해물 외 다수</b></p> <p><b>Phone(505) 884-8937</b> <b>6521 Americas Parkway, NE, ABQ</b></p>	 <p><b>Japanese Kitchen Steak House</b></p> <p>652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p> <p>Phone: 884.8937 Fax: 884.8938 <a href="http://www.japanesekitchen.com">www.japanesekitchen.com</a></p>
--	---	--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com).

경험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젊은 사람에 비하여 나올 수 있다.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0년의 경험이 필요하다. 연구결과가 1899년 심리학회지에 실리면서부터 '10년의 법칙'은 인간이 복잡한 일에 숙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라고 널리 인정되어 왔다. 서양장기시험의 결승전에서 이기려면 적어도 10년은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는 권위자들의 영향력 있는 논문이 아메리칸 사이언티스트에 실린 1973년부터는 전문가의 수행능력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경험이 항상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고, 그 후 30여 년에 걸친 전문가의 수행능력에 관한 연구결과는 경험 그 자체, 예를 들어 뇌수술이나 스키처럼 특정한 기능에 숙달되기 위하여 소비한 시간의 양은 실제로 탁월한 수행능력을 재현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었다.

그러한 연구결과는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것이 곧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경험과 탁월한 기능을 겸비한 전문수행능력자는 그래서 전문가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자기분야에서는 훌륭한 재능을 발휘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일반사람들보다 나올 게 없는 사람들이다. 경험은 전문수행능력에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행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행한다. 그 예를 우리는 운전에서 볼 수 있는데,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서는 어디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기억하기 어려울 때도 가끔 있다. 그리고 경험은 또 사람을 과신으로 이끌어서, 경주용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유자들이 일반운전자들보다 더 많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상만사를 배우는 방법은 직접경험이 으뜸이라 했고, 배우는 데는 실패가 성공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정설이라고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모두가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55세 이상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저지르는 교통위반의 35퍼센트가 선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25퍼센트가 좌회전을 잘못하는 것으로 집계된 사실은 지금까지 발표된 경험에 관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최상의 수행능력은 단순한 경험에서가 아니라 전력을 다하는 피나는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쉽게 느껴지면 그것은 타성이지 향상은 아님을 바로 알아차려야 한다. 이처럼 일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연구결과들은 나이 드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가르친다. 에드워드 머로우가 남긴 "인간은 누구나 자기자신의 경험의 노예다." 라는 말은 70을 넘긴 나 같은 사람이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인 것만 같다.

###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이사회 회장 (505-271-8031)

§ 월모임: 매월 세 번째 주 금요일 오후 7:00 pm

§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 주기도회: 매주 505-239-4401

§ 성서모임: 매주 505-515-4211

### 뉴멕시코 성경교회

신종철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 시간: 5:30 am (매일)

§ 장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06  
(505) 238-3551

### 로스 알라모스 교회 (Los Alamos, Santa Fe)

도강국 목사님

주일예배 1부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 시간: 2:00 pm

§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11:00 am

§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 주님의 교회

김의석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 6:00 am (Tue-Fri)

성경공부 § 매주 월요일 10:30 am (한인회관)

§ 장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NM 87123  
(505) 903-2297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님

주일예배 (Worship) §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in English)

§ 11:00 am (Sunday)

새벽기도회 § 5:30 am (Mon-Fri) § 6:00 am (Sat.)

###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지경일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505-453-5461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윤성렬 목사님

주일예배 § 시간: 오전 9:00 am § 시간: 오전 11:00 am

주일학교 § 시간: 오전 11:00 am

§ 장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505)  
238-3551

###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 시간:

§ 장소: 405 N. Connelly St, Clovis (575)-762-4510

# 장난꾸러기

김준호 장로

1945년은 우리나라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된 해이다. 8.15광복절!! 일본제국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해이다. 해방둥이들은 당시 한국 형편을 부모님들이나 나이든 분들이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모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어렵듯이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다. 해방된 기쁨은 그리 길지 않았다. 소련군은 블라디보스톡을 거쳐 두만강을 건너 남하하였고 연합군은 남쪽에서 북상하여 한에 맺힌 38선에서 서로 만나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우리들의 비극이 초래된 것이다. 웃을 수없는 이 야릇한 운명은 소련의 약삭빠른 잔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연합군들이 피 흘리며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은 뒷짐을 지고 방관하다가 일본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니까 그때 끼어들어 행세를 했으니 말이다. 왜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은 그냥 내버려 두고 하필이면 한국을 남북으로 쪼개 놓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나는 말이다.

두 동강이 난 한반도는 북쪽은 공산주의 체제를 남쪽은 민주주의 국가를 탄생하였다. 우리 배달민족이 갑자기 충을 서로 겨누고 원수지간이 되었으니 이런 모습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북한이 동족이니까 그들 특히 굶어죽는 서민을 도와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이나 자기 국민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 취급 하지 않으며 노예 취급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호화판 생활을 누리는 그들을 무슨 명분으로 돕자는 것인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6.25 동란은 누가 시작 했는가?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남한이 선제공격을 했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공표하고 미국 제국주의자로부터 남한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열을 올리며 침략해 왔던 것이다.

요 근래에 있었던 우리 함정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은 마치 6.25 때의 술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놈들을 혼낼 방법은 없는 걸까? 매번 당하기만 해야 된단 말인가? 나는 어린나이의 6.25때 목격했던 비참한 것들을 여기에 말하고

싶지가 않다. 너무나 가슴 아팠던 악몽들을 되살리기가 싫어서이다.

나는 황해도 해주 광석동에서 태어났다. 나의 부친은 알 임야관리 위원장이라는 감투(?)를 가지고 우리 동네 산악을 보살피는 일을 하셨다. 여기 말로는 Ranger 역할을 했던 것이다. 뭐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 무보수 직책이었다. 한 가지 임무는 누가 허가 없이 벌목을 한다거나 또는 산을 갈아 야채 밭을 만들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이었다. 또 비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물꼬를 내서 피해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특혜가 있다면 우리집만은 죽은 나무 가지를 베어 땔감으로 쓰거나 산불을 막기 위해서 풀들이 무성한 지역을 낮을 가지고 잘라 겨울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두형님들은 일을 하니까 나만 아버지와 함께 풀도 깎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도왔었다. 이 지역에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는데 밤나무가 15 그루, 감나무 하나, 직경이 2미터쯤 되는 느티나무 4 그루, 아카시아 나무 3 그루 그리고 소나무들이 널려 있었다.

가을이 되면 밤 따는 일이 만만치 않았는데 동네 애들이 마구 밤을 따가지 못하게 단속하는 일도 쉽지가 않았다. 나는 두형님들과 함께 긴 장대를 가지고 밤나무들을 두들겨서 따기도 하고 밤나무에 올라가서 따기도 했다. 그때 내가 나무 타는 실력은 아마 원숭이 사촌정도 되지 않나 싶었다. 아버지는 늘 입버릇처럼 나무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나는 발발거리며 나무를 탔기 때문에 보는 동네 사람들이 불안해 보인다고 했다. 내가 누구냐, 원숭이 사촌이잖아!

밤은 전부 우리 집 것이었다. 우리는 겨울에 밤밭을 해먹는 때가 많았다. 밤을 따가지고 가마니에 넣고 축축한 광에 넣어 두었다가 한 달쯤 지난 다음에는 밤까는 일이 아주 쉬웠다. 밤 가시도 뽕뽕하지 않게 삭아 있는 밤송이를 꺼내 발로 꺾 눌러 주면 밤이 빠져 나오곤 했다. 밤 가운데 평양밤은 알맹이는 작지만 맛은 더 달고 고소해서 인기가 좋았다. 작은 고추가 더 맵다는 말이 맞는 듯했다.

우리 집 옆에 있던 큰 느티나무 아래에 흙을 편편하게 다져 놓고 돛자리들을 깔아 놓아 무더운 여름 저녁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담소하곤 하였다. 우리 집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A-1**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Mon~Sat  
10:00~6:00

Sunday  
close



**ALLSTAR REALTY**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에는 몇 마리 동물들을 키웠다. 젓 짜는 염소 세 마리, 토끼 두 마리, 다람쥐 두 마리, 개 한 마리, 그리고 돼지 두 마리 등이었다. 염소는 젓이 많이 난다는 스위스 산 자넨종이었다. 젓 짜는 일은 주로 어머니가 하셨는데 나도 가끔 도와 드렸던 일이 기억난다. 우리 집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뿐이 아니었다. 채소밭은 사방에 널려 있어서 감자밭, 배추밭, 시금치밭, 상추밭, 옥수수밭, 고추밭 그리고 여기 저기 호박을 심었었다. 우리가 닭을 기르지 않았던 이유가 닭들이 밭에 들어가서 밭을 온통 어질러 놓기 때문이었다고 아버지가 말해 주었었다.

어머니는 나를 나이 40에 낳다고 했다. 어머니는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지내며 나를 해산한 것이다. 너무 작게 태어난 나를 보면서 동네 부인네들이 그 애는 사람구실을 못 할테니 광석개(광석천)에 버리라고 농담을 했다는 것이다. 나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이를 악물고 나를 키웠었다. 그때 무슨 이유인지는 몰랐지만 자주 엽마 젓을 먹는 버릇이 생겨서 꽤 나이가 들 때까지 먹고 자랐다. 또 엽소젓도 수시로 먹었었다. 내가 일곱 살이 되었을 때는 우리 동네에서 제법 키가 큰 축에 들었다. 처음 태어났을 때 주먹만 했던 내가 그렇게 커진 것이다!! 그후 우리 동네에서 아무도 나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부인네들이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자기네 애들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나에게 이 이야기를 내가 대학 다닐 때 해주셔서 알게 되었다.

우리 집 서쪽에 청성묘가 있었고 그 앞에 백세청풍(百世靑風)이라고 쓴 큰 비석이 있었다. 고사에 의하면 중국 은 나라가 망하자 의롭지 않는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겠다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 먹다가 굶어 죽었다는 백이와 숙제의 이야기가 있다. 백세청풍에서 백세는 한세대를 30년으로 치면 100 세대를 말하므로 3000년을 말한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수자는 오랜 세월을 뜻하고 청풍은 쾌청한 바람이 아니라 군자의 덕과 절개를 말한다고 한다. 이런 존주양이 사상은 우리역사에 남을 정도로 정신세계를 지배했었다. 해주에도 수양산이 있는데 이일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른다. 청성묘에서 이들의 충정을 생각하

며 제를 드렸는지는 사방으로 담이 싸고 있어서 몰랐고 백세청풍 비석을 가끔 보수 하는 것만 보았었다. 그 비석 주위에 Guard rail이 있었는데 이곳이 나같은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미국에는 장난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요새는 컴퓨터 게임까지 나와서 하루가 다르게 새 게임들이 발표되며 애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값도 싸지가 않다. WII 게임만 해도 꽤 비싼 편이다. 우리 아들네 집에 가보아도 얼마나 장난감이 많은지 지하실에 가득하다. 그런데 내가 소학교를 다닐 때는 장난감이란 말 자체가 없었다. 장난감을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 놀곤 하였다. 축구공은 지푸라기로 푹푹 뭉쳐서 공을 만들어 시합을 하며 놀았다.

우리 동네는 여름에 매미들이 많았다. 그것들을 잡으며 놀았는데 어느 나무에서든 매미가 울기(?) 시작하면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 손으로 잡기도 하고 매미채로 잡기도 했다. 매미가 운다고는 했지만 정말 기분이 나빠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좋아서 노래 하는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하여튼 매미는 이렇게 노래(?)한다. 맴맴 맴맴 ----- 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맴! 하고 그친다. 매미는 한번 노래하기 시작하면 여간해서는 도중에 그치는 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조금씩 나무를 흔들며 올라가도 눈치 채지 못할 때가 태반이다. 이런 식으로 잡은 매미들을 새장에 강금하고 먹이를 주며 노래하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구치소에 온 것을 아는지 절대로 노래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좀 약이 올라서 몇 마리를 꺼내서 썸바귀 진을 눈에 바르고 날려 보내면 이들이 하늘 높이 치솟는 것을 보며 혼자 중얼거린다. “노래하라고 할 때 노래했으면 새장 안에서 세상 팔자 좋았을 텐데 이제 신세 망쳤구나.” 이런 놀이가 장난감 없던 시대에 나의 놀이였다.

장난감 또 있었다. 여름 저녁에 광석천에 나가면 많은 잠자리들이 곡예를 부리며 하루사리를 잡아먹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이 잠자리를 잡기 위해 아침 새벽에 동네를 쏘다니며 매미채에 거미줄을 몇 겹으로 걸어서 채운다. 거미줄은 끈적끈적해서 날라 다니는 잠자리가 매미채에 걸리면 꼼작 못하고 잡힌다. 큰 잠

**PARK Fine Art**  
The Galeria 20 First Plaza NW Suite 27  
Albuquerque, NM 87102

문화센터 강의 안내

**성인, 주부취미반 (유화-oil painting과 파스텔화)**  
**임시반 (포트 폴리오준비반, 뎃생반)**

강사: 박영숙  
서양화가, 갤러리 Director,  
UNM CE oil painting 강사

☐ 자세한 안내 문의 ☐  
갤러리: (505)-764-1900 휴대폰: (505)-681-3859  
www.parkfineart.com E-mail: contact@parkfineart.com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자리는 Wing span이 거의 5인치 꼬리는 3 인치쯤 된다. 이 잠자리를 잡아서 꼬리를 약간 잘라내고 꼬리에 풀을 꽂아서 날려 보낸다. 나는 이런 놀이를 하는 장난꾸러기였다. 그때 나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지 않고 재미있게 놀았다고 생각 했는데 우리교회 어떤 분은 너무 잔인했다고 한다. 아마 동물 애호가 들이 들으면 크게 항의할 것이다. 그때 지금처럼 장난감들이 있었다면 그런 짓국은 장난은 안했을지도 모른다.

또 장난감 없던 시대에 우리들이 즐겨 놀았던 것은 “잡을막질”(술래잡기?)이었다. 도망자 게임이다. 독자들은 미국 영화중에 The Fugitive(도망자)를 알 것이다. Harrison Ford 와 Tommy Lee Jones가 열연을 벌리며 아주 숨 가쁘게 만드는 흥행 만점 영화이다. 우리들이 했던 잡을막질도 꽤 재미있다고 생각 한다. 게임은 이렇게 하였다. 도망자들은 아이들 수에 따라 결정된다. 예로 4명에 잡는 경찰 역할 아이(Police boy)는 한 명이다. 이 아이가 도망 다니는 아이들을 touch하면 잡힌다. 잡힌 애들은 구치소?에 모여 있어야 한다. 구치소는 바로 상기한 우리들의 놀이터(백세청풍 비석)였다. 도망자들은 도망칠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어서 그 밖으로 나가면 touch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잡힌 것이 되었다. 이 모든 게임을 감시하는 감시원이 정해져서 touch 여부를 판정한다. 정해진 시간에 많이 잡은 애가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경찰이 되든지 나를 잡는 것은 좀 힘든 일이었다. 쏘살거리며 요리 빠져 나가고 저리 빠져 나가고 ----- 한번은 내가 큰 느티나무로 올라가니까 경찰 아이가 준호는 이제 꿈작 못하고 잡혔구나 생각하고 따라 올라왔다. 자꾸 올라 가다가 내가 다른 나무 가지로 원숭이처럼 뛰어 잡고 도망을 치니까 그만 놓치고 말았다. 그 애는 느티나무가지가 휘청거리기는 하지만 잘 꺾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이 잡을막질 놀이는 물속에서도 했었다. 방법은 광석 개 줄기 중에 가마못이라는 상당히 깊은 곳이 있었다. 여기서 물놀이를 하는데 도망자가 높은 바위 위에서 가마못으로 뛰어 내리면 경찰 아이는 하나 둘 셋 ----- 열까지 세고는 물로 뛰어 내려 도망자를 잡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물속에서 눈을 뜨고 애가 어디 있나 보고 바위 구석에 숨어 있다가 다른 쪽 물위로

나오는 것이다. 그때는 모든 애들이 속옷도 없이 알뜰으로 수영하면서 게임을 했었다. 좀 추운 듯하면 바위에 누워서 몸을 데우기도 했다. 집에 와서 거울로 내 눈을 보면 눈알이 조금 빨간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하루 물속에서 눈을 뜨고 놀았기 때문이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좀 미개한 시대에 살았었다고 느껴진다.

한번은 겨울에 산언덕에서 동네 아이들과 불장난을 하다가 마른 잔디에 불뿔이 튀었다. 삼시간에 잔디가 타기 시작했다. 우리는 겁이 나서 불을 끄지 않고 모두 도망쳤다. 그런데 한가지 다행스러웠던 것은 바람이 산 위쪽으로 불지 않고 언덕 아래로 불어서 잔디가 많이 타지 않고 꺼졌다. 나는 다른 데 가서 놀다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천연스럽게 집에 돌아 왔다. 그런데 들통이 나버렸다. 누가 나의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해서 산을 태울 뻔 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임야관리위원장의 아들이 산불을 냈다면 책임추궁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매우 노하셨고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걸으라고 하셨다. 나는 그때 많이 맞았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불장난을 안 하게 되었다.

나의 어린시절은 장난감 없이 자연이 허락해 주는 것들을 가지고 놀며 자랐다. 이밖에도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만하고 중요한 것은 장난감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지도 않았고 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 홀로 만이 아니고 독자들 중에도 있을 줄 안다. 용매도로 피난 나왔을 때 해주를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했다. “언제나 고향에 돌아 갈수 있을까”하고 생각 하였다. 작은 형님과 함께 부르던 노래가 있다.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세어 보니 -----” 그러나 나의 운명은 또 바뀌어서 수만리 떨어진 미국 알버커키까지 와서 알버커키가 나의 제2의 고향이 된 것이다. 누가 말 했는지는 몰라도 추억은 아름답다고 했다. 참 맞는 말이다.



**THE INGLES Company Realtors**



**최 귀 분**

- Office: 505-828-1366
- Fax: 505-828-0773
- Cell: 505-249-8686
- Email: guiboon@msn.com

**Break out of your shell...  
EXERT CONFIDENCE!**



**Watch them transform and become more:**

- Self-Confident
- Disciplined
- Flexible
- Coordinated

Give your kids the edge they need to succeed while having great fun.

**Dynamic Taekwondo Center**  
5850 Eubank # 8 - 35  
(505) 271-2000  
New master in town  
Master Jaeshin CHO  
**CALL NOW !!!!**  
I'll honor all previous Y'kim's, pride tkd students

**Special Introductory class**  
**\$29.95**  
**FREE Uniform**

Expires on June 30 2010.



## 산길의 야생화 ( 9월 )

이경화 박사

알버커키의 금년 여름은 몬순 씨즌이 늦게 시작되어 8월에 들어 서 서야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단비가 내리길 오랫동안 기다려온 꽃이 뒤 늦게 서로 다투며 피기 시작해서 샌디아 산 밑에는 많은 꽃이 피어 있음을 보게된다. 스페인과 트램웨이 네거리에서 동쪽으로 반 마일 가량 가면 스페인길이 끝나는 지점에 베어 케니언 트레일헤드(Bear Canyon Trailhead) 주차장에 이른다. 9월 어느 아침 여기서 시작되는 트레일을 걸으면서 들 꽃 사진을 찍었다. '사막에 꽃이 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걷기 시작했다. 의외로 많은 꽃을 발견해서 한시간도 안되어 16가지가 넘는 꽃을 사진 찍을수 있었다. 찍은 사진 중에서 아홉개의 꽃을 '광야의 소리'에 데뷔 시킨다.



### • 아버트의 돔(Abert's Dome)

콩알 만큼 작은 꽃이다. 제임스 아버트라는 사람이 19세기중반 때에 미국 남서부 지역의 꽃 수집을 하다가 발견해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꽃 이름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 꽃의 특징은 초록색을 띤 둥글게 올라온 돔(Dome) 모양의 꽃 중앙, 중심화(Disk Flower)부분이다. 키는 6인치 내외가 된다.



### • 짐손위드(Jimsonweed)

베어케니언트레일에서 발견한 꽃 중에서 제일 소중한게 생각되는 꽃이 이 꽃이다. 다른 트레일에서는 보기어려웠는데 이곳에는 군락을 이루어 퍼 있었다. 이 꽃을 가장 많이 사랑 한 사람이 아마도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가 아닌가 생각 된다. 그는 뉴욕의 고향을 떠나 뉴멕시코로 내려 와서 여생을 뉴멕시코의 경치와 꽃들을 그리면서 지냈다. 그가 짐손위드의 흰 꽃을 화폭에 짝 차게 그린 1932년의 작품은 지금도 포스터로 판매되고 있는 명품이다. 이 명품을 실물로 보고 또 사진에 담았다. 꽃의 직경은 6인치 크기의 대형 꽃이었고 가시돋힌 1인치 크기의 씨껍술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 스칼렛 크리퍼(Scalet Creeper)

아침 기상 나팔을 부는 나팔꽃 종류에 속한다. 오랜 지색상을 가진 붉은 색의 꽃이다. 꽃의 기리는 1.5인치 정도의 작은 꽃이지만 사막에서 보기 드문 빨간색의 꽃이어서 반갑게 느껴졌다. 녀쿨의 잎은 세 갈래 또는 다섯 갈래로 갈라진 잎이다.





- 아파치 프롬 (Apache plume)

아파치 프롬은 알버커키 시내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키작은 나무, Shrub이다. 아파치 프롬 꽃은 짙레꽃을 생각나게하는 하얀꽃인데 봄 부터 여름 내내 피는 꽃이다. 꽃이 진 다음에 남는 씨가 분홍색 머리 카락 같은 실에 은빛의 털이 붙어서 바람에 불려 날라가기 좋게 깃털 모양으로 꽃 같이 오래동안 달려 있게 된다. 프롬(Plume)은 꽃 깃털을 말한다. 풋볼 경기장에서 치어리더(Cheer Leader)들이 손에 들고 흔드는 폼폼(Pom-pom) 같다고 미니 폼폼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아파치 프롬 나무 가지는 비교적 곧고 길게 자라서 옛날 아파치 인디언들이 화살대를 만들어 쓰기도 했다고 전한다.



- 데서트 마운틴 플록스(Desert Mountain Phlox)

핑크색의 데서트 마운틴 플록스는 보통 4~6월에 피는 꽃인데 금년은 가뭄 탓인지 늦게 활짝 펴서 사막을 수놓고 있다. 꽃이 아주 화려해서 야생화가 아닌 온실에서 키운 값 비싼 꽃같아 보인다.



- 크래미워드(Clammyweed)

흰 꽃이 무더기로 모여 피는데 갈색의 긴 수술이 마치 고양이 수염같다고 해서 Redwhisker Clammyweed라고도 별명이 붙었다. 꽃 잎은 스푼 모양으로 네잎이 달려있다.





• 페인트 브러쉬(Paintbrush)

빨간 페인트를 듬뿍 찍은 화가가 쓰는 붓 같다고 해서 페인트 브러쉬란 이름이 붙었다. 비가 많이 온 탓인지 꽃이 다른때 보다 더 싱싱해 보인다. 인디언 페인트 브러쉬, 콜로라도 페인트 브러쉬, 홀리프 페인트 브러쉬등 여러 종류가 뉴멕시코에 있는데 사진에 찍힌 꽃이 어느 것에 속하는지 알아내는 과제가 내가 해야 될 숙제이다.



• 그로브매로우(Globe-marrow)

이 꽃을 보면 외로워 보인다. 모여서 피는 경우보다 홀로 외롭게 떨어져 자라는 것을 많이 보아 와서 그리 느껴지는 가 보다. 꽃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광야에 소리에' 데뷔시킨다. 색깔이 오렌지색 또는 캔터로프 멜론(Cantalope Melon)색같다. 키는 10~20인치 정도, 꽃잎의 크기는 3/8~3/4인치 내외다. 뉴멕시코에 많이 퍼져 있고 해발 4,500~8,000피트 되는 지역에서 자란다.



• 호스네틀(Horese-nettle)

보라색의 이 꽃도 홀로 떨어져 외롭게 자라는 데다가 꽃이 늘 머리숙인 모습을 하고 있어서 가여워 보인다. 잎과 줄기에는 은빛나는 가시털이 있어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가 철저히 되어 있다. 꽃이 진후에는 노란 열매를 맺는데 독성이 있어서 이를 먹은 짐승은 죽을수도 있다고 한다. 인디언들은 약초로도 쓴다. 키는 2-3피트 까지 자란다.



(글과 사진: 이경화)

NEW KOREA TRAVEL SERVICES CST #2126850

# 새한여행사

"당신의 출발을 가볍게 해드립니다. 여행은 새한여행사의 미소로 시작됩니다."

**대표 전화 (213)383-4988**

**가장 싼 비행기! 신속한 서비스!**

항 공 권	호 텔	관 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세계 항공권 도매가격</li> <li>• 한국형 가장 현으로 서울출발 미국(영문·이민)</li> <li>• 동경, 홍콩, 대만, 미닐라, 뭉남이 가장 현요금</li> <li>• 전유럽 가장 현 요금 항공 보유·전유럽 기차표</li> <li>• 미국내선 가장 현요금 항공가능</li> <li>• 중남미표 아주 현 요금</li> <li>• 단체 특별할인요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상 필요한 시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li> <li>(신라, 롯데, 휘카빌, 라이다 프네상스 호텔데리전 및 전세계 호텔예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관광 • 하와이관광 • 성지순례</li> <li>• 신혼여행 • 크루즈 관광</li> <li>• 미국내 동·중·서부 정기관광</li> <li>• 남미관광 • 다량Tour Packages</li> <li>• 중국 • 베트남 • 소년 비지대령</li> </ul>

새한여행사는 전세계 모든 항공사의 공인 대리점입니다

KOREAN AIR KOREAN AIRLINES 7 AIRCHERRY THAI Thai Airway Co., Ltd. TATA CLIA AGATTA Amman

**타주무료전화 1-(800)421-5489 FAX(213)383-6752**

2717 W. OLYMPIC BLVD., #203, L.A., CA 90006 (올림픽·뉴벨프시, 나마은행 건물 옆)

Website: www.newkoreatravel.com E-mail: newkoreatravel@yahoo.com

## 연합 집회 강사: 이성일 목사



### 가족사항

- 아내/ 이 정애
- 딸/ 이 평화
- 아들/ 이 우주

### 교육 배경

- 선교학 박사 (5/2007). E. S. J. School of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에즈베리 신학대학 (Wilmore, KY) 논문: *Korean Christian Understanding of Bok and Spiritual Maturity from a Missiological Perspective* (2007)
- Master of Sacred Theology (5/1998). Drew University (Madison, New Jersey) 논문: *"Spiritual Economics and Mission"* (1998)
- 목회학 박사(3/1994). 유니온 신학대학 박사원 (Manila, Philippines) 논문: *"Leadership Development As a Central Mission Movement in the Province of Bataan and Zambales, the Philippines"* (1994)
- 감신대 대학원 졸업 (2/1986, 서울). 논문: "레 이몬드 파니카의 우주적 기독교론 연구" (1986)
- 감신대 졸업 (2/1983 서울).

### 목회경험

- 리빙스톤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6/2009~현재)
- 베다니 연합감리교회 (행정목사, 2004~2008, Wayne, NJ)
- 미네소타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2001 ~2003, Minneapolis, MN)
- 켄터키 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Radcliff, KY)
- 후러싱 제일교회 부담임(Queens, New York)



### City)

- 감리교 파송 필리핀 선교사 (12/1991~8/1996,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훈련, 교회개혁사역, 국제신학생 기도모임사역 등)
- 육군 군종 목사 역임 (4/1986~10/1991)
- 화성중앙감리교회 (5/1983~4/1986, 청양군 화성)

### 훈련사역

- 뉴저지 실버 선교회 강사 및 운영이사 (2004-현재)
- 제자훈련 사역교재 개발 및 훈련
- 단기 선교사 훈련 및 단기선교 인도
- 교회 선교 소명 세미나 인도 (신학교, 일반교회)
- 전도폭발 임상훈련 및 고급 지도자 세미나 수료 (Evangelism Explosion III) 및 지역 교회 접목
- 셀 목장 임상훈련 및 지역 교회 접목
- 두날개 컨퍼런스 및 집중훈련수료/G-12세미나 수료
- 평신도 지도력 훈련
- 칼럼리스트 (Christian Today, 2005-2008)
- Georgia Christian University, NJ Campus, 선교학 교수 (2006-현재), NY UTS 선교학 교수 (2010-현재), Henderson 대학 한국 분교 선교학 교수 (2011년 현재)

## 축 개업

**Hair & Co.**  
5901 Wyoming Blvd NE Suite T  
Albuquerque, NM 87109  
(505) 797-8087

(New Clients 15% Off)

Hair Cut & Style

Shampoo & Style

Conditioning Treatment

Color service

Foil Highlight or Lowlight

Permanent Wave & Style

Permanet Hari Straightening

Waxing



## 갑자기 쓴 글



광야의 소리를 편집하다보면 갑자기 페이지를 채워 넣어야 할 때가 생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워낙 다른 일들이 밀리다보니 오늘 안에 9월호 광야의 소리를 끝내야 되는데 이리저리 편집해서 페이지를 엮다보니 한 페이지가 모자란다. 늘 글 좀 써달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탁한 지가 햇수로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른다. 매번 광야의 소리를 읽어보시는 독자들은 아시겠지만 고정적으로 글을 써 보내주시는 분들은 세분 밖에 없다. 그분들 때문에 그나마 페이지가 채워져서 매달 발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면을 통해 글을 써 보내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내가 글을 안 썼던 이유가 있다. 핑계라면 핑계일 것이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광야의 소리는 알버커키 연합 감리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섬기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광야의 소리는 한인회 이름을 출간되어 발송되어 왔다. 그런데 감리교회 목사까지 나서서 글을 써대면 마치 광야의 소리가 감리교회를 선전하는 전단지 같아 보일까봐 그동안 자제해 온 것이다. 그런데 해가 지나면서 그런 겸손함(?)도 무디어져버린 것 같다. 이제는 글이나 소식을 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나라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

늘 바라던 것이지만 뉴멕시코 주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글을 써주기만 바랄 뿐이다. 자기를 자랑하는 글도 좋고 자기 사업을 선전하는 글도 좋다. 같은 울타리에 있는 한인들이 다양하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소개할 수 있는 광야의 소리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벌써 알버커키에서 7년을 살면서 나도 알버커키에 물들어 버린 사람이 되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실 경우 특히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경우에는 알버커키 공항을 이용하게 된다. 내가 알버커키 공항으로 오시는 손님을 만나면 그 분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것이 있다. 공항 내 북도 좌우편 벽에 커다랗게 걸려 있는 윌슨 헐리(Wilson Hurley)의 그림이다. 한 쪽 편에는 샌디아 산 풍경이 걸려 있고 반대편 쪽에는 알버커키의 저녁 풍경이 걸려 있다. 처음 그 그림을 대했을 때에는 신기하기만 했다. 그림에는 문외한인 내가 북도 중앙에서 그 두 그림을 보았을 때에는 마치 그림이라기보다는 마치 풍경을 사진 찍은 것 같아 보였다. 너무 감동적이라 홀린 듯 다가가서 그림을 자세히 보았다. 그런데 정작 바로 앞에서 본 그림은 북도 중앙에서 본 그런 그림이 아니었다. 붓으로 거칠게 그려놓은 전혀 다른 그림이었다. 눈이 의심스러워 다시 확인해보려고 북도 중앙으로 나섰다. 웬걸, 처음에 보았던 사진같은 알버커키의 풍경, 샌디아 산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도대체 그림을 그리는 “화가”란 어떤 사람들인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림을 볼 때 사진같이 보이게 하

는 능력은 내 상상을 넘어선다. 화가 윌슨 헐리(Wilson Hurley)가 보통사람보다 긴 팔을 가져서 그런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닐 것이다. 그 그림을 제대로 보면서 그리려면 아마 보통 사람의 10배 이상 되는 긴 팔을 가져야 할 것이다. 7년을 알버커키에 살았지만 아직도 그런 긴 팔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 분명 윌슨 헐리(Wilson Hurley)는 우리와 같은 짧은 팔을 갖고 있으면서도 멀리서 볼 때 깊은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 그것이 내겐 신기할 뿐이다. 그러니 공항에 나가기만하면 손님을 붙잡아 놓고 “여기 서서 보라, 저기가 가서 보라”하며 주문을 해댄다.

이후 나는 그림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손님이 오시면 알버커키에 있는 갤러리 뿐 아니라 산타페까지 올라가서 갤러리에 걸려 있는 그림들을 보여주곤 한다. 웃긴 것은 많은 손님들이 갤러리에 걸려 있는 그림보다 그 그림 아래 적혀있는 가격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다. “저건 사진인데 50만불이나 해?” “와, 저건 가격이 100만불이나 하네!”

## Fuji Yama 후지 야마 일식 Japanese Restaurant

5001 Central Ave, NE  
Albuquerque, NM 87108  
(505) 265-9774



(우표 값이 61센트에서 64센트로 올랐습니다)

광야의 소리를 1년 동안  
집에서 받아 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본인 이름 집 주소

64센트 우표 12장

또는 8불 짜리 check를

payable to "KUMC"로 써서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f you want to receive this journal by  
mail, send by mail your name and  
address to following address with your  
\$8 check payable to KUMC)

To: Voice in the Wilderness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알버커키

### Albuquerque

#### 한국식품점

#####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 한인 식당

##### Korean Restaurant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BQ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Midori Susui 6205-B  
Montgomery NE ABQ  
(505-830-2507)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BQ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Yen Ching: 4410 Wyoming  
NE, ABQ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츄럴: 2302 Morris  
NE, ABQ (505-453-5461)

####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 모텔 Hotel/Motel

Ramada Inn: 2015 Menaul  
Blvd NE, ABQ  
(505-881-3210)

#### 부동산 Realtors

그레이스킴 Grace Kim:  
Kerzee Real Estate  
(505-315-5123)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최귀분 Gui B. Bonaguidi:  
Vaughan Company  
(505-249-8686)

####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BQ  
(505-883-9009)

####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Central Outlet: 4716 Central  
Ave SE, ABQ (505-  
255-4345)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797-8087)

Hair Dynamic(Ashley):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샌디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BQ  
(505-823-1678)

알버커키 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 주택용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200 Lomas  
Blvd. NW 11flow 87102  
(Office 505-765-5098)  
(cell 505-379-1089)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BQ  
(505-271-2633)

####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96-0336

#### 한의원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BQ  
(505-710-7504)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514-2900)

####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 중재서비스

###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 리오란초

### Rio Rancho

#### 한인 식당

####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crest  
Dr. SE Suite #0 Rio Rancho,  
NM 87124

Osaka Restaurant: 1463 Rio  
Rancho Blvd, Rio Rancho  
(505-892-7778)

##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 클로비스 Clovis

###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 로스 알라모스

### Los Alamos

###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츨: Los Alamos  
(505-662-9681)

###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

## 산타페 Santa Fe

### 한인 식당

####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

## 겔럽 Gallup

###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5396)

###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 라스크루세스 Las

### Cruces

### 한인 식당

#### Korean Restaurant

Five Brother's Chinese:  
1001 E. University Ave.,

C1, Las Cruces  
(575-496-2445)

###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 화밍톤 Farmington

###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 벼룩 시장 FLEA MARKET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광고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미주 한인회  
도움이 필요합니다

폴리아미드 (나일론) PA6  
PA66 구합니다 폐기되는  
카펫에서각은 샴방구루  
펠렛 PA6 PA66  
섬유스크랩 취급하시는분  
또는 구해주실 분 계시면  
연락주세요 양은 얼마든지  
관계없이 구매합니다

E-mail  
lsy1030@korea.com

MOBILE +82-16-850-9952  
번입니다

## 사고/팔고

## 정보마당

## 초청합니다

### 단요가 기체조 무료 강연회

DAHNYOGA(Brian Kim)

- \* 기체조, 명상, 뇌파진동
- \* 기사진 촬영 (컴퓨터, 기사진촬영기)
- \* 건강상담 (고혈압, 불면증, 스트레스해소)

- \* 건강원리설명: 아랫배가 따뜻해야 오래산다.  
숨이 내려갈수록 장수한다.

날자: 9월 17일 2011년(토)

시간: 1:00pm-3:00pm

장소: 뉴멕시코주한인회관

9607 Menaul Blvd. NE Abq, NM 87112  
(Menaul/Eubank NW Corner)  
Tel: (505) 271-1777 [www.kaanm.com](http://www.kaanm.com)





알버커키 박영숙 화가([www.youngsookpark.com](http://www.youngsookpark.com))와 김수영 화가([www.geocities.com/hongsooyoungstudio](http://www.geocities.com/hongsooyoungstudio))의 작품들입니다.

##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www.kaanm.com](http://www.kaanm.com)

stamp here

64 cent 우표  
붙인 후 반으로  
접어서 발송

To: